

# 정유업계 손실대책이 시급하다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최** 근 정유업계는 국제원유가격의 상승과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하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석유협회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 또다시 정유업계의 손실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나선 것도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정유업계는 인건비상승 등에 따라 '89년도에 정제비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비용 증가분은 오는 5월경에 사후정산되며, 또 사후정산때 일부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유가관리제도의 모순에 따라 지난 '89년말 현재 약 6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지난 1, 2월중 3백2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와같은 손실요인에 대한 별도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정유5사의 '89년도 결산이익은 허용이익(1천 63억원)에 크게 미달한 세전 4백50억원(세후 2백5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이익규모는 '89년말 현재 정유5사의 자기자본규모가 총7천5백억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자기자본이익률은 겨우 세후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우기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장평균환율제로 원화의 절하속도가 가속화되어 있어 앞으로 정유업계의 환차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유산업에 대한 허용이익규

모가 작고 또한 정유업계의 경영개선노력으로 인한 수익개선분과 비용절감분까지 유가로 환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손실요인이 계속 누적될 경우 정유업계는 수요구조변화에 대응키 위한 시설고도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흔히 석유산업은 「땅짚고 헤엄치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80~'88년중 정유산업의 이익은 총 1천9백57억원으로서 이익은 2백17억원에 불과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은 3.3%로서 제조업평균 4.9%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매출액이익률은 0.6%로서 국내의 타업종은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의 타정유사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저조한 이익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있다. 정부는 석유류제품의 최고가격을 결정, 고시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허용이익을 자기자본대비 세전 16.5%로 제한, 업계의 실현이익이 허용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석유사업기금을 통해 이를 환수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발생된 정제비 및 판매비 일부를 연말정산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현이익은 정부의 허용이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유산업 수익추이

(단위 : 억 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누계
-585	-245	529	14	145	424	454	569	653	1,957

<자료> 석유협회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가격관리나 엄격한 이익관리 는 이제 지도와 지원의 수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성장 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유업계는 보고 있 다.

현재 정부는 석유류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고시하여 정유사의 이익을 사전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최고가 격제하에서 경영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자기자본에 대한 公金利率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78년도에 세후 15%로 정유업의 허용이익을 정한후 단계적 감축을 진 행, '8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유업의 이익을 세전 16.5%(세후 9.3%)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영실적이 말해 주듯이, 정유업계 의 실제이익은 허용이익에도 못미치고 있다는데에 문제 가 있다. 현재의 허용이익 세전 1천63억원을 전액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법인세, 배당, 법정적립금을 차감할 경 우 업계가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작 8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시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여신관리규제하에 있는 정유업계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시설고도화투자 등의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국내정유산업은 타산업 또는 외국정유업계에 비해 상대 적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업계의 경영난은 단순한 업살이 아니라, 업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석유산업이 그 국민경제적 사명을 다하 며 견실하게 발전하고,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기자본 이익률 비교

(단위 : %)

	정유부문 허용이익률	정유부문 실제이익률	정 유 사 전 체	제 조 업 평 균
1980	0	-60.9	-34.6	- 7.1
1981	13.5	-18.6	- 8.3	- 1.7
1982	10	20.7	17.2	1.2
1983	10	0.5	4.2	9.6
1984	10	4.8	6.4	6.8
1985	10	11.2	9.6	5.8
1986	10	9.4	11.9	10.9
1987	10	9.8	11.6	10.7
1988	10	8.2	11.5	8.1
'80-'88 평균	9.3	- 1.7	3.3	4.9

(자료) 석유협회

주요업종의 자기자본 이익률

(단위 : %)

	정유	화학	자동차	가전	제조업평균	증권업
1983	0.5	10.6	23.3	21.4	9.6	2.2
1984	4.8	6.6	14.5	12.1	6.8	6.1
1985	11.2	6.3	12.7	10.0	5.8	11.3
1986	9.4	9.2	10.6	12.5	10.9	13.9
1987	9.8	8.9	12.3	10.1	10.7	15.5
1988	8.2	10.8	7.4	11.8	8.1	11.8
평균	7.3	8.7	13.5	13.0	8.7	10.1

(자료) 석유협회

외국과의 매출액 이익률 비교

(단위 : %)

	한국 (평균)	일본 (평균)	엑스 (美國)	B. P (英國)	로알더치셀 (네덜란드 · 英國)
1983	0.02	0.8	5.3	3.2	5.2
1984	0.2	0.5	5.7	2.9	5.7
1985	0.6	0.8	5.2	1.6	4.8
1986	0.8	1.1	7.0	1.8	5.7
1987	1.0	1.2	7.0	5.0	6.1
1988	1.2	1.1	5.9	4.8	6.1
평균	0.6	0.9	6.0	3.2	5.6

(자료) 석유협회

첫째, 누적되고 있는 정유업계의 추가손실요인을 즉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허용이익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허용이익은 적정배당을 위한 최소이익과 사내유보, 그리고 재투자재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후 20% 수준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가산정방식을 객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유 가를 표준원가개념에 의해 연동공식화하고, 이때 정유사 가 경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액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즉 판매수익, 환율, 정제비등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발생 즉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및 민간기업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시점에 와 있다. 과거의 에너지정책이 경제개발과정에서 목표달성위주의 정책이었다면 '90년대의 정책은 신축적 목표지향의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고도의 전문적 운용으로 원숙되어야 할 것이다. ♣